



세계 입맛 사로잡은 K소스 고추장과 김치 소스, 쌈장 같은 한국식 양념이 전 세계 식탁을 사로잡으면서 K소스가 연간 수출액 4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저염, 비건, 글루텐프리 등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워 해외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10면

美-러도 참전, 전선 커지는 中日 갈등

미국무부 “日방위 약속 흔들림 없어”
다카이치 취임 한달, 日 지지 발언
러는 “日총리 발언 위험” 中 두둔

다카이치, 대만 발언 철회 요구 일축
美, 韓에 역할 요구뎀 실용외교 부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
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그의 ‘대만 유사시 집
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
이 미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
국은 일본,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을 두둔하는 진
영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미일 동맹, 센
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
며 일본을 지지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까지 미국이 방어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적대적
인 북한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의 여러 도전
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3자 협력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
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을 내린 것을 두고 “전례적
인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북한 등은 중국 편에 섰다. 20일 중국 관
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
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라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그는 이날도 자신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에 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한 20일 대만 진먼도 인근 해역에 해경 함정을 보내 군사 위협을 가했다. 베이징=신화 뉴스·일본 아사히신문 제공

며 중국을 두둔했다. 북한 또한 18일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기 전
집단 자위권에 대한 질문을 받아 “정부 입장은 한
결같다”며 발언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 외
교부는 같은 날 “발언을 철회하라”며 대립했다.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핵추진 잠
수함 승인 등을 계기로 한국에 대중 견제 동참을 거
듭 압박하고 있다. 반면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
사는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일부 사
람이 중국의 발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20일
한국의 대(對)미국 투자를 두고 “산업 공동화가 우



려된다”며 중국과의 인공지능(AI) 산업 협력을 촉
구했다.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대(對)중국 관
계 또한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작지 않은 부담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신진우 niceshin@donga.com /
도쿄=황인환 특파원 / 이지은 기자
▶3면에 관련기사

전기 이륜차 충전 딜레마 집안선 위험-실외는 부족

7만대 넘었지만 실내 충전에 의존
배터리 화재 잇따라... 사망 사고도

서울 은평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36)에게 주
말은 ‘배터리 충전을 감시하는 날’이다. 외출을 미
루고 집에 머물며 출퇴근용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가 충전되는 모습을 지켜본다. 혹시 모를 폭발이
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씨는 “배터리 화
재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하지만, 집 안에서 충전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 이륜차 보급 대수는 7만 대를 넘어섰
지만 충전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 전기 승용차는
공용 충전소를 이용하는 반면, 전기 이륜차는 다세
대주택 실내 콘센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환경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정부는 민간 업체와 협력해 탈착식 배터리를 실
외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BSS)’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이륜차 배
터리와 규격이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
제 이달 5일에도 BSS와 호환되지 않는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예비부부가
목숨을 잃었다.

실내 충전은 위험하고 실외 충전 인프라는 부족
해 이용자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배터리 제품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자들이 안전한 충
전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12면에 관련기사

채상병 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 피의자 12명 기소

(前해병대 1사단장)

채 사망 28개월만에 수사 마무리
“尹 ‘격노’ 후 사건 은폐-축소 의혹
수사 공정성 침해한 권력형 범죄”

해병대 채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2명을 재판
에 넘겼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이
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
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
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
가안보실장, 신병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
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
리관, 유균해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
부 검찰단장, 김계한 전 해병대사령관, 이모 국방
부 조직총괄담당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석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공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

령은 2023년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참모진
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이첩하려던 수사기록을 보류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 및 축
소시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정민영 특검
보는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달 28일까지인 수사기
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도 조만간 할 예정이
다. 여근호 yeoroot@donga.com·구민기·최미송 기자
▶5면에 관련기사

與 “李 순방 끝나는 대로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정청래 “논의 수면위로, 당정대 조율”
특별법 통과뎀 내년 지방선거前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중단됐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
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
통령 순방 외교가 빚바래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
대 간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대로 내란전담재
판부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유죄 확정 시 사면·

복권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했다.

민주당에선 내란 혐의 재판 2심을 맡을 서울고등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
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재판부 가동이 본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5면에 관련기사

내일 신문 읽니다 dongA.com 서비스는 계속

**재활 운동 전문가가
매주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멀리 있어도 부모님을 향한 아들, 딸들의 마음,
매주 찾아가는 방문 재활 운동으로 제일라핏케어가 연결해 드립니다.

CHEIL REFIT CARE
재활 리핏 케어

청담 제일정형외과병원 협력, 시니어 전문 재활운동센터
제일 라핏 케어
내 집에서 편하게, 재활 운동 전문가에게
받는 1:1 맞춤 방문 재활운동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선생님 덕분에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요**

**골절 이후 우울했던 엄마가 운동도하고 말동무도
생겼다고 엄청 밝아 지셨어요 운동 날만 기다리세요**

**허리 수술 후 집에서 방문 운동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재활을 해줄지 몰랐어요**

청담동 본원 센터에서도 체계적인 재활 운동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재활 운동 - 척추, 관절 시·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분
청담동 본원 센터 운동 - 신경계질환으로 일상 회복이 필요한 분
디지털 화상 운동 - 낙상 예방, 보행 안정성이 필요한 분
재활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한 분

02.542.2488